

황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약속

황해생태지역 보전사업(Yellow Sea Eco-region Conservation Project)



다양한 생명의 빛이 반짝이는 황해

한국과 중국이 마주보는 드넓은 바다 황해. 이곳은 찬란한 인류 역사문화가 꽃피운 곳이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 증가에 따른 대규모 연안매립과 개발, 수산자원 남획, 급속한 도시화로 자연과 인간의 아슬아슬한 공존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파나소닉은 훼손된 황해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2007년부터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YSESP Yellow Sea Ecoregion Support Project)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황해 보전을 위한 협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구의 생물다양성을 상징하는 곳, 황해생태지역

세계에서 규모가 큰 대륙붕 중 하나인 황해생태지역은 황해, 발해만, 동중국해 등이 포함되는 곳으로서 남·북한과 중국 해안지대에 걸쳐 있는 수심 200m 이내 접경지역이다. 한국과 중국의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풍부한 영양분과 햇빛, 얕은 수심이 어우러져 황해생태지역은 풍부한 해양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장거리 이동 철새들을 위한 국제공항

황해의 갯벌은 매년 수백만 마리의 물새가 날아와 시베리아나 호주 등지로 장거리 이동을 하기 위해 다양한 동식물을 먹이 삼아 재충전을 하는 곳이다. 한국에는 도요·물떼새류, 오리류, 갈매기류, 두루미류, 고니류 등 162종의 물새가 서식하고, 중국에는 물새 173종, 바다새 9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 멸종위기에 처한 물범
- 2 노랑부리백로
- 3 짹짹 하는 흰물떼새
- 4 갯벌에서 먹이를 찾는 큰뒷부리도요



고래와 물범의 안식처

황해에서 고래와 돌고래류 17종, 물범류 4종이 발견되었다. 한국의 하구와 연안은 수달의 주요 서식지이고, 발해만은 물범의 서식지이며, 상괭이는 한국과 중국을 넘나든다. 그러나 물범과 고래와 같은 대형 포유류는 한국과 중국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법 남획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황금어장

한국 연안에는 갯지렁이류, 연체동물, 갑각류, 극피동물 등 500종 이상의 해양무척추동물이 살고 있으며, 황해에서 발견된 어류는 총 276종에 달한다. 이러한 생태계는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중요한 경제 소득원이 되고 있으나, 점차 연안개발과 대규모 양식 등으로 인해 이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



- 1 무안갯벌 항공사진
- 2 갯벌 위를 뛰어다니는 짱뚱어
- 3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흰발농게

1997년부터 시작된 황해 생태계 지키기 프로젝트

인간과 자연의 아슬아슬한 공존

황해는 한국의 서울, 인천, 북한의 평양, 남포, 중국의 칭따오, 톈진, 다롄, 상하이 등을 연결하는 해안을 따라 대도시가 발달하면서 매우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살고 있다. 대도시 시민들은 식량, 경제발전, 여가와 휴식 등을 황해에 의존하면서도 대규모 연안매립과 개발, 수산자원 남획,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인간과 자연의 아슬아슬한 공존을 이어가고 있다.

황해를 지키자! 황해생태지역 보전사업

황해생태지역 보전사업은 생태계를 훼손하는 각종 위협에서 황해생태지역의 서식지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황해생태지역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알리며,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공동의 노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 공동프로젝트다.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은 2002~2006년에 수행되었던 황해생태지역 계획프로그램(YSEPP Yellow Sea Ecoregion Planning Programme)에 이어 2007~2014년까지 (주)파나소닉이 재정을 후원하며, 한국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중국·일본의 세계자연보호기금 지부가 각 국가별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황해생태지역 계획프로그램이 과학자들이 생물학적 평가를 통해 잠재적 우선보전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특히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보전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한국의 전라남도 무안갯벌과 중국의 압록강하구가 선정되어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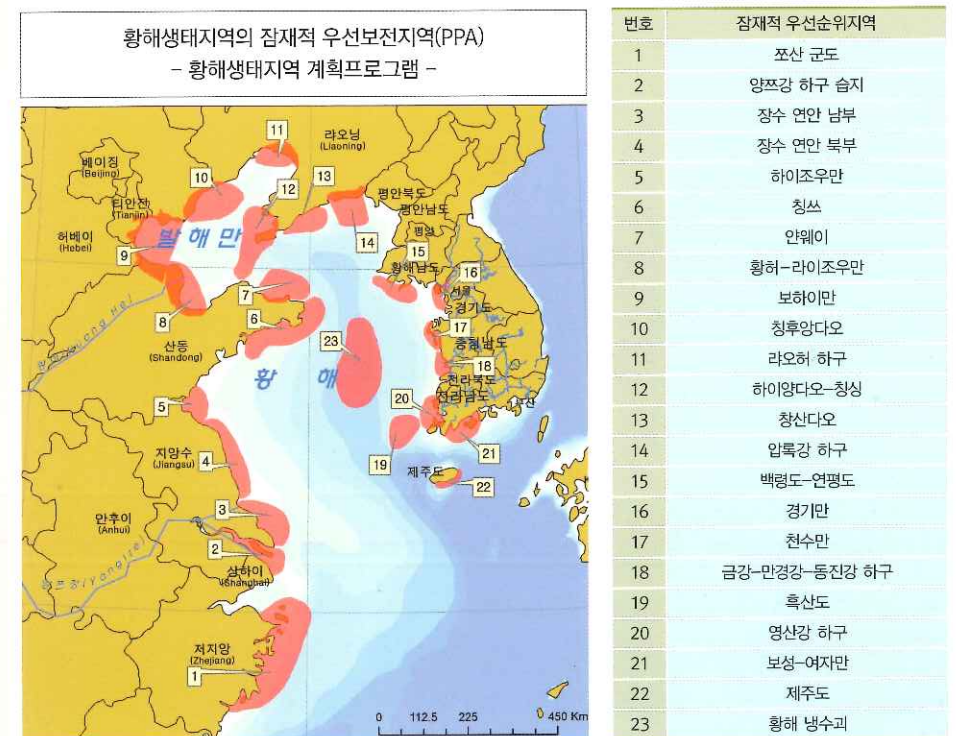
황해생태지역 보전 시범사업: 한국 무안갯벌과 중국 압록강하구 보전활동

2010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황해 생태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보전지역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보전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생태지평연구소가 전라남도 무안갯벌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무안갯벌 생물다양성 증진과 전라남도 지역 주요 갯벌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수행중이며, 중국은 요녕성 단둥시 압록강하구에서 해양수산과학연구원이 「중국 압록강하구 지역 연안 생태계 기반 관리형 모델 개발」사업을 수행중이다.

황해생태지역 보전사업의 발자취

1997	동·식물의 멸종과 서식지 파괴를 막기 위한 「WWF 글로벌 200 생태지역」 선정
2002~2006	황해생태지역 계획프로그램에서 황해생태지역 「잠재적 우선보전지역」 선정
2005	황해생태지역 계획프로그램(YSEPP: 세계자연보호기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황해광역생태지역 프로젝트(YSLME: UNDP/GEF) 양해각서 체결
2007~2009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 - 소액지원사업(한국 5개, 중국 10개 기관 수행)
2010~2012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 - 서식지 관리지역 시범사업 • 한국 시범사업: 전라남도 무안갯벌 지역(생태지평연구소 수행) • 중국 시범사업: 압록강 하구 지역(해양수산과학연구원 수행)



세계자연보호기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황해생태지역으로 정의된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진단하고, 우선적으로 보전해야 할 세부지역을 선정했다.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무안갯벌 보전활동

한국 제1호 갯벌습지보호지역, 전라남도 무안갯벌

한국에서 가장 많은 갯벌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서남해안의 전라남도 지역이다. 한국 전체 갯벌의 41.7%가 전라남도에 분포하며, 한국 최초의 갯벌습지보호지역인 무안갯벌이 이곳에 있다. 무안갯벌은 약 3천 년 전 상승하던 황해의 바닷물이 무안 연안까지 들어오면서 갯벌이 형성되었고, 복잡한 해안선과 얇은 수심은 해양생물이 서식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에는 약 229종의 저서생물, 22종의 어류와 47종의 물새, 45종의 염생식물 등이 서식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황해 보전

1990년대까지만 해도 갯벌을 쓸모없는 땅이라 여겨 간척하던 역사가 있었다. 무안갯벌 역시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계획이 있었으나, 지역주민들의 갯벌 지키기 운동으로 1998년 취소되었다. 이후 2001년 한국의 갯벌습지보호지역 제1호, 2008년 전라남도가 자랑하는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랍사르 습지로 등록되었다. 또한 황해생태지역 '잠재적 우선보전지역'에도 포함된다.

무안갯벌 보호지역 지정 현황

지정현황	지정일	면적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제1호	2001. 12. 28	42km ²
랍사르습지 제1732호	2008. 01. 14	3,589ha
무안갯벌 도립공원	2008. 06. 05	37,123km ²

주민 참여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과 통합해양환경관리체계 구축사업(2010~2012)

갯벌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는 '갯벌보전-지역발전'이 상생하는 성공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은 갯벌을 직접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지방정부-중앙정부-연구기관-교육기관-NGO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습지보호지역 관리정책 수립과 지역발전방안을 협력하고 있다.



1 주민들의 삶의 터전 무안갯벌 2 제1회 무안 갯벌문화 축제 3 주민이 안내하는 무안갯벌 생태여행



무안갯벌 보전활동

1. 생물다양성(생물종, 서식지) 관리

-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갯벌 시민모니터링 방법론 정립
- 무안갯벌 시민모니터링 매뉴얼 및 조사수첩 제작
- 무안갯벌 시민모니터링 시행
- 생태학적 연계성(Ecological linkage) 연구 모색

2. 거버넌스 관리

- 무안갯벌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 무안갯벌 교육교재 및 교구 개발
- 전라남도 교육기관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방안 수립
- 한-외덴해 3국(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갯벌교육 국제협력
- 청소년 갯벌 캠프

3. 지속가능한 이용

- 무안갯벌 생태여행 자원발굴 및 인프라 구축
- 무안갯벌 생태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무안갯벌 걷는 길 발굴 및 마을자원 연계 방안 연구
- 무안 갯벌문화 축제
- 무안갯벌 기념품 공모전 및 제작
- 무안갯벌 요리자원 발굴 및 요리교실을 통한 주민교육
- 한-일 갯벌생태지역 주민 교류사업

1 갯벌 보전을 기원하는 무안갯벌문화제 <매향> 개최 2 무안갯벌 어린이 생태교육 프로그램 3 한-외덴해 3국(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갯벌교육 국제협력 4 갯벌 시민모니터링 워크숍 5 갯벌요리 교실을 통한 주민교육 6 무안갯벌 청소년 생태교육 프로그램



황해는 지구의 중요한 자연생태계 중 하나다. 어류, 무척추동물, 해양 포유류, 조류 등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생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갯벌이 있다.

황해생태지역 보전사업(Yellow Sea Eco-region Conservation Project)은 갯벌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갯벌보전-지역발전'의 상생모델을 만드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급격한 경제개발과 도시화로 위기에 처한 황해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Japan)
6F, Nihonseimei Akabanebashi Bldg.,
3-1-14 Shiba, Tokyo 105-0014, Japan
Tel: +81-3-3769-1713 www.wwf.or.jp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
Tel: (031) 400-7677 www.kiostr.ac
* 한국해양연구원(KORDI)을 확대·개편하여
해양전문 연구·교육기관으로 2012년 7월 1일 출범



파나소닉(Panasonic)
1006, Oaza Kadoma, Kadoma-shi,
Osaka 571-8501, Japan
Tel: +81-6-6908-1121 www.panasonic.net

YESP 한국 시범사업 수행기관



생태지평연구소(Eco-Horizon Institute)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561-60
Tel: (02) 338-9572-4 www.ecoin.or.kr